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통합예술치료에서의 예술치료사 체험 연구*

김 나 영**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연구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통일부 자료(2017년 6월 말 기준)¹⁾에 따르면 탈북자의 입국 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잠정 30,805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과정은 몇 개월의 단기적 기간이기 보다는 몇 년씩 장기적 기간을 제 3국에서 보낸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소희와 이선혜²⁾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제대로 된 영양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 해체 및 중국을 비롯하여 제 3국을 거치면서 불안한 삶의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탈북 과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족의 해체 및 죽음, 제3국의 문화 적응, 모국어 상실 및 새로운 언어 습득 등 긴박하고 급변하는 환경적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하는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게 한다. 이러한 불안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은 인간의 몸을 과도하게 혹은 과소하게 활성화시켜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경험되는 트라우마의 경험 수준으로 만든다.³⁾

북한이탈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직접적으로 북한이탈 경험이 없더라도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 보고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에서의 통제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험과 북한이탈과정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 이전이나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양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할 수 있

* 이 연구는 GS칼텍스 마음톡톡 예술정서지원사업과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연구비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교수 nayungkim@swu.ac.kr

1)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017.9.15).

2) 이소희, 이선혜(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의학』 24(3), pp.124-131.

3) P. Levine(1997), *Waking the tiger*(Berkeley: North Atlantic Press), pp.12-90.

며 북한이탈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로 경험될 수 있다.⁴⁾ 또한 한국에서도 부모의 직업, 재혼 등으로 인한 분리경험으로 인해 불안정 애착 특히 회피애착 성향이 높은 편이다. 이는 타인을 불신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위축되고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⁵⁾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 과정에서 경험했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한국사회 정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접촉 및 정보제공 제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학력 검정의 요구,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비용발생으로 인한 심리치료에 대한 비자발적 태도 등의 이유로 한국 사회 적응에서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심리·정서적 지원 및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개입을 외면하고 있거나 단발성으로만 적용하여 실행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게 하고 이들의 북한이탈에 대한 가치를 낮게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nternational Stress Traumatic Stress Studies의 PTSD 치료 가이드 16항과 17항⁶⁾에 따르면 예술 치료는 움직임, 춤, 글쓰기, 그림, 소리 음악 등을 사용하는 예술 과정으로 정의하고,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 창조적인 예술과정은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다. 예술치료는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각각의 치료분야들이 서로 통합되어 실시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각각의 단일 매체를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 보다 통합된 예술치료가 내담자에게 보다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⁷⁾ 특히 예술치료에서 신체의 운동감각과 감각경험은 우뇌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비언어적인 암묵적 외상 기억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술치료의 다양한 감각(시각, 소리, 접촉, 운동감각) 자극들은 트라우마의 이미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예술치료 과정에 몰입하고 표현하는 것은 내적인 이미지, 생각, 느낌, 감정을 외현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감정을 조금씩 풀어내고 담아둘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상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⁸⁾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입국과 정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을 하는 예술치료 사례는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하는 예술치료사의 숫자도 매우 적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와 본질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더 증가될 북한이탈인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예술치료 적용과 연구 자료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 예술치료사들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4) 김나영, 이정민, 정미지(2016), 북한이탈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체험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2(5), p.18.

5) 김희정(2015),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양상 및 문제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45.

6) International Stress Traumatic Stress Studies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stss.org/treating-trauma/current-istss-treatment-guidelines.aspx>, 2017.9.15>.

7) Ibid., 2017,9,15.

8) Ibid., 2017,9,15.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에게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들의 체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Amedeo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목표는 규칙성과 법칙에서 벗어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의미부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⁹⁾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4단계가 있으며, 과정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우선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철저히 탐색하여 전체를 인식한 후, 의미단위를 구분하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여 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¹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들의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자 의미단위, 하위주제, 핵심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학문적 용어로 구조화하여 통합적으로 서술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6년 G사의 북한이탈청소년 예술정서지원 사업에 참여한 3명의 무용/동작심리치료사와 5명의 미술심리치료사들로 총 8명의 예술치료사들이다. 참여자들은 최소 12회기에서 최대 24회기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예술치료 임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예술치료관련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과정 재학 상태이다. 참여자들 중 3년 이상 북한이탈청소년의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예술치료사는 1명이었고 7명의 참여자들은 2년 이상의 국내 아동청소년의 임상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예술치료사들은 협업적 혹은 통합예술치료의 경험과 통합예술치료 연수 및 슈퍼비전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연령대였다.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별	전공매체	학력	회기 기간	국내 청소년 임상 경력	북한이탈 청소년 임상 경력	통합예술 치료 경험
1	여	무용/동작심리치료	박사재학	24회기	유	무	유
2	여	무용/동작심리치료	박사재학	24회기	유	무	유
3	여	무용/동작심리치료	석사	12회기	유	무	유
4	여	미술심리치료	석사	24회기	유	유	유
5	여	미술심리치료	박사재학	12회기	유	무	유
6	여	미술심리치료	박사재학	24회기	유	무	유
7	여	미술심리치료	박사재학	24회기	유	무	유
8	여	미술심리치료	박사재학	12회기	유	무	유

9) 최희아(2017), 심리치료사의 소진과 자기돌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2.

10) 김나영 외(2016), p.19.

3.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8명의 예술치료사들에게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의 자료가 포화된 시점에 면담은 종료하였다. 자료 수집은 녹음과 심층 면담 당시 현장에서 정리된 메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에 필요한 설명을 연구자로부터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 동의한 후 면담에 응했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들에게 동의 를 구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진술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 1’과 같이 특정 기호 표기로 서술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모든 자료는 연구가 끝난 후에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심층 면담 시에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통합예술치료 체험 전반에 관하여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 형태 를 사용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1시간 정도로 참여자 별로 1회씩 개별로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 응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고, 녹음된 모든 진술은 면담이 끝난 1주일 안에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추가적 질문 내용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확인 하였다.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로서 ‘판단중지(bracketing)’를 하여,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집중하도록 노력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분석되었다. Giorgi는 4단계의 분석단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현상에 대한 각각의 참여자 면담 내용을 전체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필사하였다. 두 번째는 모든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얻은 다음, 연구자는 참여자 면담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 입장에서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들의 체험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단위(meaning unit)를 요약하였다. 세 번째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들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학문적 의미의 언어로 전행하였다. 여러 개의 의미단위를 필요한 만큼 여러 번의 전형을 거쳐 학문적 측면에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다. 네 번째는 의미단위 속에 포함된 통찰을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하고 종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로부터 2회의 자문을 받았다.

4. 통합예술치료

예술치료사들이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된 통합예술치료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이탈부터 한국 정착에서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트라우마 에너지를 신체와 미술의 표현 과정을 통하여 안전하게 방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예술치료의 치료적 구조의 특징은 1명의 무용/동작심리치료사와 1명의 미술심리치료사(이하 예술치료사)가 하나의 집단을 진행하며, 두 명의 예술치료사가 공동의 리더십을 가졌다. 총 12회기로 회기당 90분의 통합예술치료가 진행되었다. 통합예술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예술치료사들에게 최대 20회 이상의 집단 혹은 개별 슈퍼비전이 제공되었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예술치료사의 체험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이해, 예술치료사의 통합예술치료 경험, 북한이탈청소년의 기관의 특성 이해로 3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탈북아동청소년의 특성 이해에서는 4개의 핵심구성요소와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예술치료사의 통합예술치료 경험에서는 5개의 핵심구성요소와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 기관의 특성 이해에서는 1개의 핵심구성요소와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1.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이해 영역 구성요소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이해에서는 4개의 핵심구성요소와 10개의 하위주제를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는 <표 2>과 같다.

<표 2>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이해에 대한 구성요소

핵심구성요소	하위주제	의미단위
선입견을 가짐	선입견으로 인한 오해	소외계층이며 이질적 집단일 것이라 예상함 강력한 충격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 예상함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적극적 일 것이라 예상함
국내 위기 청소년 심리지원 대상과 다르지 않음	외적 행동 표현	과도각성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음 일반적 행동장애아동들과 비슷함
	내적 정서 표현	신체는 중학생인데 감정표현은 초등학교 수준임 무기력하고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을 토로함
	사회적 관계 경험	정규교육과정 경험이 거의 없음 찾은 결석과 지각을 함 함께 기숙하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없음
다국적 문화 경험에 의한 전체성 혼란과 향수를 가짐	제3국 체류경험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1개 이상의 국가에 체류함 출생국이 북한이 아니고 제3국임
	체류국에 대한 향수	제3국의 음식, 언어, 친구 등을 모국의 것처럼 그리워함 체류했던 제3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함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편안해 함
	정체성의 혼란	체류했던 곳의 문화에 익숙한 것에 혼란을 가짐 중국어도 한국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 북한은 나쁘고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중국이 더 편안함
낮선 예술매체를 통해 고유의 욕구를 표현함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욕구 표현	자기공간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현함 개인적 공간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이완하는 것을 즐김 집, 마당, 자기방 등 자신만의 공간의 소유 표현을 많이 함
	순수 예술에 대한 경험 부재	무용은 물론 미술 매체의 경험이 없음 미술 검시에 익숙함을 가짐
	표현의 제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부분은 표현하지 않음 소극적이고 작게 그리지만 필압은 강하고 거칠음

가. 선입견을 가짐

이 핵심구성요소는 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꽃제비와 같은 이미지를 생각했고... 제가 생각한 삐쩍 마르고 까맣고 굉장히 고생한 그런 이미지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청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참여자 2)

심각한 PTSD일 거라고, 소외계층일 거라고, 뭐 어쨌든 이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똑같았어요. 우리랑.(참여자 5)

나. 국내 위기청소년 심리지원 대상과 다르지 않음

이 핵심구성요소는 3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표현이 안되고 자기한테 집중하는 것도 안되었어요. 옆의 아동을 때리거나 치면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바닥에 누워있고.(참여자 2)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ADHD였어요. 계속해서 과잉하는 ADHD요. 사회성 기술이 낮고 상호작용도 못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참여자 6)

한 친구는 계속 누워만 있고, 어떤 애는 들어오면서부터 울고, 또 지각 결석 많구요. (참여자 7)

다. 다국적 문화 경험에 의한 정체성 혼란과 향수를 가짐

이 핵심구성요소는 3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참 복잡해요. 자기는 물론 북한에 엄마가 있지만 북한 사람도 아니고 현재 몸은 남한에 있지만 남한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중국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심지어 중국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하는지에 대한 방황하는 물음표를 갖고 자기를 이곳으로 데려온 부모에 대한 막연한 어떤 반항심 같은 것이 있어 힘들어해요. (참여자 7)

중국에서 생활하던 것을 얘기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남한에 와서 남한 국적을 취득해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깃발 이런 거 그려도 되나, 아니면 제가 만났던 아이 중 하나는 북한 노래를 불러도 되요 라고 묻기도 해요. (참여자 1)

라. 낯선 예술매체를 통해 고유의 욕구를 표현함

이 핵심구성요소는 3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치료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태도가 되게 소중하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치료사들도 더더욱 그렇게 다가갔고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얘기하며 너무 감동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내 집이 너무

예쁘고 소중한고 떠나고 싶지 않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탈북아이들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른 공간에 초대되는 과정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참여자 4)

뭔가 곁에서 보기엔 되게 소극적일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생각보다 표현되는 선은 되게 거칠고 필압도 강했고, 또 담아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 아이들이었고 생각보다 솔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6)

2. 예술치료사의 통합예술치료 경험 영역 구성요소

예술치료사의 통합예술치료 경험에서는 5개의 핵심구성요소와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는 <표 3>와 같다.

<표 3> 예술치료사의 통합예술치료 경험의 구성요소

핵심구성요소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새로운 구조의 어려움	도전과 두려움	낯선 공간에서 낯선 매체로 공동 진행하는 것은 도전의식이 필요함 치료사 자신의 개인성향이 강하게 인식이 오히려 부담됨 매체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두려움 내담자의 자세한 정보를 모른 채 심리치료를 시작함
	두 명의 치료사에 대한 모호함과 혼란스러움	두 명의 치료사는 두 명의 엄마가 됨 낯선 두 명의 리더십이 존재함 역할의 모호함이 불안하게 됨 내담자가 눈치를 보며 파워를 찾음 누구의 시간이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모호함
두 명의 치료사에 대한 양가적 상황	두 명의 치료사가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공유의 시간만큼 안정감이 늘어남 서로 다른 매체의 치료사에게 의지하고 동지애를 갖게 됨 치료과정에서의 자유로움이 배려로 변화됨 서로에게 수용되는 경험이 통합치료이라고 생각됨 서로 적극적 모델링과 언어적 피드백을 통해 지지를 받음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장을 경험함 치료사 간의 허용이 진정한 통합을 시도하게 됨
	두 사람의 상호작용	비언어적/언어적으로 즉흥적인 의사소통을 가질 때 통합과정이 성취됨 미술과 무용 두 개의 매체지만 마치 하나의 매체처럼 느껴짐
진정한 통합을 경험	하나보다 두 개가 더 나옴	나만의 전문적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보니 더 확장됨 단독적으로 하나의 매체만 다룰 때보다 내담자를 더 다양하게 이해하게 됨
	치료 과정이 쉬워짐	내담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훨씬 더 몰입이 잘 되는 것을 목격함 치료사의 타 매체에 대한 익숙하지 않고 실수하는 모습이 집단의 아이스 브레이킹에 도움이 됨 내담자들이 자유롭게 편한 선택이 존재함
통합예술치료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만남	치료사 자신의 변화	자신의 치료에 통합예술치료를 적용하게 됨 다른 매체로도 같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됨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데 어떤 매체이어야 함은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됨 내담자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함
	내담자를 향하는 태도 변화	내담자를 이해하는 수준이 깊어짐 내담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됨
	새로운 정체성이 생김	통합예술치료사라는 옷을 입게 됨 미술치료사로서 정체성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미술치료사라는 것을 잊게 됨
예술치료사로서 한걸음 더 성장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교육 및 임상 훈련이 필요	북한이탈인을 위한 전문심리치료사의 양성이 필요함 예술치료사의 통합예술치료를 위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 필요함 다른 예술매체에 대한 수퍼비전이 필요함 통합예술치료의 전문적 수퍼비전이 필요함

가. 새로운 구조의 어려움

이 핵심구성요소는 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동등하게 똑같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다른 타인과 함께 그 집단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진행 방식들을 구조화 시키는 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리셋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분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절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나. 두 명의 치료사에 대한 양가적 상황

이 핵심구성요소는 2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겁이 덜컥 났었는데 내가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겁이 났던 거 같아요. 준비가 잘 된 선생님의 세션을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웠어요. (참여자 1)

무용치료는 우리 감정을 이완시키거나 신체를 이완시킬 때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구사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낯설고 새롭고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로 다가왔고……. 서로에게 서로의 매체에 대한 질문과 답을 구하며 전평터에서 함께 하는 동지에 같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참여자 5)

다. 진정한 통합을 경험

이 핵심구성요소는 3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함께 진행하는 치료사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게 통합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이때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경험이 참 기억에 남고 저에게 울림이 있었어요. (참여자 3)

내담자들이 지루해할 틈이 없어요. 매체가 다양하니까 자신을 드러낼 통로가 많은 거지요. 저희도 한 방법으로도만 기다리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4)

라. 통합예술치료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만남

이 핵심구성요소는 3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치료과정에서 뭐 제가 미술에 대한 어떤 작업을 제안할 때는 확실한 미술치료사로 존재했지만 그 외의 다른 순간순간 어떤 모먼트에는 제가 미술치료사라는 옷을 딱 입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뭐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뭐 제가 그걸 알건 모르건 어떤 눈 같은 게 되게 진짜 달라졌어요. 아니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참여자 8)

몸의 움직임과 이미지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굉장히 유사하게 뭐가 공통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만 가지고 그 내담자를 탐색하기 보다는 더 풍성한 정보들이 아무래도 좀 더 주어지고 확신이 드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내담자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유익한 도움이 되었 습니다. (참여자 5)

마. 예술치료사로서 한걸음 성장

이 핵심구성요소는 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치료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설불리 건드렸다가 더 많 이 곱게 하거나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탈북관련 기관에서 심 리치료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쉽게 문을 안 여는 요인 중에 하나인 그런 것도 분명하거든요. (참여자 3)

이번에 수퍼비전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안내를 받았을 때 안도감 그런 것들이 소진되는 것 을 많이 막아주었어요. 끝난 후 예술치료사로서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상 을 위해 공부도 더 해보고 싶어요. 수퍼비전이 있어 좋았지만 학문적으로 더 공부해야 탈북전 문인이 되겠지요? (참여자 7)

3. 북한이탈청소년 기관의 특성 이해 영역 구성요소

북한이탈청소년 기관의 특성 이해에서는 1개의 핵심구성요소와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성 요소는 <표 4>과 같다.

<표 4> 북한이탈청소년 기관의 특성 이해 구성요소

핵심구성요소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능동적 협조 속에 한계 경험	심리치료의 이해 부족	한국생활 적응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독려 프로그램으로 인식함 심리치료의 장기적 개입에 강한 거부감
	정보공개 의 한계	가족의 행태를 알 수 없고 묻기가 어려움 부모들이 기관에도 아동의 정보를 정확히 주지 않음 치료과정에서 개인적 정보를 묻는 것은 내담자에게 피해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북한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금기사항 임
	양면적 대응	내담자의 결석에 방임 수준으로 무기력하게 대응함 과보호로 느껴질 정도로 내담자를 감싸고 돕

가. 능동적 협조 속에 한계 경험

이 핵심구성요소는 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을 모집할 때 말 잘 듣고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아이들로 모집했다고 하셨어요.....
우리 애들은 심리치료까지도 필요 없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심리치료까지는 할 수도 없
다고 여러 번 반복하셨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인정보는 줄 수 없다고 기관에서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언제 왔는지, 어느 나라를 거쳐서 왔는지 알려주시지 않고 중국에서, 필리핀에 있다 왔다 이런 정도만 제공 받았어요. (참여자 6)

너무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것은 아닌가하고 무용치료사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이들이 집단에 결석해도 그냥 두세요. 학생이 힘들다고 하네요 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전부였고 학생에게도 힘들어? 그럼 쉬어 라고 하면서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참여자 2)

4. 통합적 글쓰기

북한이탈청소년에게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북한이탈청소년과 임상적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인 예술치료사들이 선행연구와 미디어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하여 이질적인 집단이지만 한국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예술치료에서 만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예술치료사들이 이전에 임상경험에서 만나 본 일반적 행동장애 아동들과 다르지 않았다. 또한 정규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어 사회적 기술이 낮아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다른 특별한 점은 함께 살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부모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부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북한과 다른 제3국에서 체류하는 경험이 많았는데 이기간 동안 이들은 체류국가의 언어, 음식, 친구, 문화에 익숙해진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인 국적을 갖고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전 체류국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었다. 또한 현재 한국인이지만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고 중국어와 같이 외국어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들이 한국인인지 아니면 중국인인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자기 정체성의 혼란은 한국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청소년에게 통합예술치료의 경험은 예술매체의 낯섦이 있긴 하지만 무용과 같은 신체표현과 미술표현 작업과정에서 개인적 공간과 소유의 욕구를 안전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가족이나 한국입국 전의 친구들에 대한 표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미술에서 이미지 표현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예술매체의 낯선 경험은 오히려 저항이나 방어 없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안전한 매체가 되었다.

한편 통합예술치료를 경험한 무용/동작심리치료사와 미술심리치료사들은 새로운 치료구조에 대한 도전을 해야 했다. 개인적 성향이 드러나거나 매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높아졌다. 더욱이 제한된 정보만 이해하고 내담자를 만나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었다. 또한 두 명이 한 집단을 진행하는 구조로 인하여 리더십과 힘의 쏠림에 모호함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로움이 발생하는 허용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수용되는 경험이 통합예술치료를 시도하게 만들었다. 두 명의 치료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치료사로서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두 사람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내담자를 더욱 쉽게 만들었고 더욱 몰입하는 경험을 주었다. 하나의 매체 보다는 두 개의 매체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두 개의 시각이

하나의 결론을 얻게 하였다. 이러한 예술치료사들의 통찰들은 이미 자신의 전공매체에 대한 확고한 역량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술치료사로서 자신의 매체에 대한 자신감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할 때 타 매체의 이해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해되는 부분이다.

예술치료사들은 통합예술치료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임상에서도 통합을 시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내담자와 소통하는데 꼭 어떤 매체이어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몸과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는 임상이 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경험을 통해 내담자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예술치료사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통합예술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익숙함을 가질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퍼비전과 동료수퍼비전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인의 깊이 있는 이해를 갖는 전문치료사의 양성은 작금의 시대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개입의 목적은 단순히 이들을 증상이 있는 병리적 기준의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과정에서 경험되는 트라우마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방출하여 개인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은 한국정착을 위한 학력 검정고시와 한국어 교육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탈북이라는 무거운 주제 때문에 북한이탈청소년의 행동적 문제에 무기력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방임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경험한 탈북이라는 힘들었던 과정의 경험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비롯될 수는 있으나 향후 이들의 안정된 한국정착을 위한 심리적 지원 개입에는 개인적 정보 및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는 원활하고 개방적 소통이 필요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의 체험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예술치료사의 어려움과 성장의 체험을 이해하였으며 여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제비의 모습이나 한국인과는 다른 모습이 아닌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각성상태로 마치 행동장애의 특성처럼 정서적 표현이 공격적이고 조절이 힘든 상태이며, 반대로 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를 보였다. 이는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인하여 심각하게 손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다.¹¹⁾ 청소년의 시기는 정신병리의 발병에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난민 청소년에게 올바른 정신건강의 기능과 심리적 안녕을 위하여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Foa와 Meadows¹²⁾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제3국을 거쳐 체류하며 그곳의

11) C. Choi(2010), A Pilo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Themes Found During the CARING at Columbia-Music Therapy Program with Refugee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Journal of Music Therapy*, XLVII(4), pp.380-407.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진다. 한국에 입국 후에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의 학력검증 시험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북한이탈 후 체류했던 국가의 문화와 언어의 향수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외로움과 소외감, 자신감 저하 등과 같은 심리적 부작용을 갖게 한다.¹³⁾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예술치료사들이 진행한 통합예술치료는 무용과 미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예술심리치료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자신의 공간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보였다. 또한 자기공간에서 이완을 더 쉽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통합예술치료과정의 경험에서 신체를 통해 이완하고 타인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며 자신을 인식하였다는 김나영 외¹⁴⁾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바 심리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이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 진행 경험이 없는 예술치료사들로 새로운 치료구조가 낯설고 모호하며 힘의 쓸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하는 구조에서 예술치료사들은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에 지날수록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는 예술이 주는 자유로움이 두 사람을 서로 허용하고 존중하는 경험으로 이끌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동지애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창조적 잠재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미지의 것이라는 두려움이고, 이것은 우리를 엄청난 에너지로 가두지만 예술이라는 창조적 경험은 두려움을 약화 시키고 함께하는 모든 것과 동맹을 맺는다는 Roger¹⁵⁾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예술치료사들은 하나의 예술매체로 내담자를 만날 때 보다 치료과정이 더 쉽게 느껴졌고 내담자 스스로 선택하는 편안한 자유로움에서 새로운 통합예술치료에 매료되었다. 이는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전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참여자들이 특정한 표현방법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 한 가지 표현 양식에 덜 고립된다는 McNiff¹⁶⁾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예술치료의 임상적 적용의 확장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예술매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수퍼비전 이 존재해야 한다는 강조가 시사되었다.

셋째, 본 연구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하는 예술치료사들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숙형 학교, 방과 후 교실, 대안교실 등의 기관과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었다. 기관의 담당자들은 통합예술치료 진행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협조해주었으나 심리치료에 대한 특히 예술치료에 대한 이해가 낮은데서 기인된 오해와 거부감을 드러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치료의 필요성은 Kowitt 외¹⁷⁾의 주장처럼 난민청소년들은 단순히 학습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정서적, 행동적,

12) E. B. Foa & E. A. Meadows(1997), Psychosocial Treatment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Critical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pp.449-480.

13)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p.296.

14) 김나영 외(2016), pp.17-32.

15) N. Rogers(1993), *The Creative Connection: Expressive Arts as Healing*(Mountain View: Science & Behavior Books, Inc), pp.32-33.

16) S. McNiff(2009), *Integrating the Arts in Therapy*(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pp.186-187.

17) S. D. Kowitt, D. Emmerling, D. Gavarkavich, C. Mershon, K. Linton, H. Rubesin, C. Agnew-Brune, & E. Eng(2016), A Pilot Evaluation of an Art Therapy Program for Refugee Youth from Burma, *Art Therapy: 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33(1), p.14.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해체와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연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개인정보공개의 한계를 갖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나 실제의 심리치료과정에서 어디까지 제한을 둘 것인지 대하여 예술치료사들은 예민함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담자에 관한 비밀유지라는 윤리적 개념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죽음의 문턱을 넘다듬며 탈북이라는 과정을 경험한 북한이탈인들에게 예술치료사들은 경외의 마음으로 개인정보공개 제한이라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에게 통합예술치료를 진행한 예술치료사들의 체험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통합예술치료 경험, 북한이탈청소년 기관의 특성에 대하여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치료와 예술치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을 예술치료사의 체험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예술치료사로서 경력과 발달 수준에 따라 체험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진행한 통합예술치료에 참여한 북한이탈청소년의 탈북경로와 한국정착경력이 달라 통합예술치료의 발달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개인적 정보공개의 한계와 비밀보장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면담 내용은 삭제 및 수정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예술치료사들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통합예술치료 체험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나영, 이정민, 정미지(2016). 북한이탈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체험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2(5): 17-32.
- 김희정(2015).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양상 및 문제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희, 이선혜(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의학』 24(3): 124-131.
- 최희아(2017). 심리치료사의 소진과 자기돌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017.9.15.>.
- International Stress Traumatic Stress Studies 홈페이지. <<https://www.istss.org/treating-trauma/current-istss-treatment-guidelines.aspx>, 2017.9.15.>.
- Choi, C. M. H. (2010). A Pilo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Themes Found During the CARING at Columbia-Music Therapy Program with Refugee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Journal of Music Therapy*, XLVII(4): 380-407.
- Foa E. B., & Meadows, E. A. (1997). Psychosocial Treatment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Critical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449-480.
- Kowitt, S. D., Emmerling, D., Gavarkavich, D., Mershon, C., Linton, K., Rubesin, H., Agnew-Brune, C., & Eng, E. (2016). A Pilot Evaluation of an Art Therapy Program for Refugee Youth from Burma. *Art Therapy: 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33(1): 13-20.
- Levine, P. (1997). *Waking the tiger*. Berkeley: North Atlantic Press.
- McNiff, S. (2009). *Integrating the Arts in Therap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Rogers, N. (1993). *The Creative Connection: Expressive Arts as Healing*. Mountain View: Science & Behavior Books. Inc.

논문투고일 2017. 9. 15
심사일 2017. 9. 28
심사완료일 2017. 10. 6

Abstract

A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Arts Therapists in the Integrating Arts Therap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

Kim, Nayung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arts therapists experiences in the integrating arts therap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arts therapists by Amedeo Giorg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domains of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the experience of arts therapist about integrating arts therapy, a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establishment.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had four core themes. Second, the experience of arts therapists about integrating arts therapy had five core themes. Last,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establishment has one core theme.

The understanding experience of arts therapist in the integrating arts therap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would be useful for studying integrating arts therapy henceforth.

Keywords: Integrating Arts Therapy(통합예술치료), Phenomenological Study(현상학적 연구),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북한이탈청소년), Arts Therapist(예술치료사), Trauma(트라우마)